

한국 수묵예술의 현재와 미래, 뉴욕에서 만나다

전남문화재단 'New York, New Ink' 전, 30일까지 뉴욕한국문화원
강운·설박·한영섭 등 작가 8명 참여...수묵 예술성과 현대미술 융합

한국 수묵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성, 뉴욕을 물들이다.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에서 수묵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화제다.

전남문화재단(대표 이사 김은영)은 미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오는 30일까지 'New York, New Ink' 전을 진행 중이다. 수묵 예술의 현대적 가치를 세계무대에 확산하고 K컬처의 새 장르로서의 수묵의 입지를 다지자는 취지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뉴욕 전시는 윤재갑 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이 기획했으며 강운, 구성연, 설박, 윤지영, 이아남, 정광희, 한영섭, 김상연 등 모두 8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로 다른 장르, 매체, 기법을 구사하는 작가들은 '수묵'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통해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 미술과 수묵의 매력을 선사했다.

특히 개막식 현장은 수묵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진 프로그램들로 호평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김은영 문화재단 대표 이사는 통화에서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수묵의 예술성, 호감도 등을 통해 한국 수묵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매체와의 수묵의 융합과 접목은 향후 세계적 확장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ew York, New Ink'라는 주제가 합의하듯 수묵이라는 'New Ink'가 내재하고 있는 물성과 특질, 고유한 정신은 서양인들에게 호기심을 넘어 예술성을 사유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 수묵의 깊은 울림이 전시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박 작 'Form of NAture'

심을 넘어 예술성을 사유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 수묵의 깊은 울림이 전시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운 작가는 구름의 보이지 않는 형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주목했다. 구름을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상정해 한자와 멋, 빛이 자연스럽게 어



강운 작 '아트 앤 드림'

우러져 연출되는 장면을 풀어낸 것이다. 총총의 종이와 기증을 통해 "형성이 형상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수묵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시했다.

한영섭 작가는 자연이 스스로 빚어내는 불확정적 현상학을 시각화했다. 시간과 물질, 풍경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탄본의 선구자인 그는 추상과 기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연의 본질을 탐색한 작품으로 관객을 맞았다.

김상연 작가는 그동안 동아시아 수인(水印) 판화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해왔다. 물성과 압, 결, 번짐의 수묵적 정신을 판화와 회화 그리고 설치로 확장한 것. 작가는 과학적 질서와 심리적 혼돈의 교차점을 토대로 동양 판화의 현대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개막식에는 강효석 전남 문화융성국장,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론킴,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와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예와 수묵,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온 정광희 작가는 개막식에서 퍼포먼스 '나를 긁는다'를 선보였다. 그는 "(한일)을 긁는 일회성의 행위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은 인생과 닮아 있다"고 밝혔다.



정광희 작가 퍼포먼스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또한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書即其人(서예기인)처럼 자기가 긁는 -(한일)은 봇을 통해 정신을 모으려는 강한 의지와 솔직한 자기감정이 여과 없이 자신의 심리와 수행의 정도를 단번에 드러내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不自欺(부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참 나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일)을 긁는 것은 점(點)과 획(劃)으로 드러내는 한 편의 시(詩)와 같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가장 추상화된 자화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미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수묵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New York, New Ink' 전을 펼친다. 지난 9일 개막식에서 전시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전남문화재단 제공>

젊은 연주자들이 전하는 치유의 선율

'비바 양상을 창단 연주회'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무대가 열린다. 실내악 팀 비바 양상을 창단 연주회를 열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비바 양상을 창단 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바이올리ニ스트 조영훈을 중심으로 한 비바 양상을 한양대 음악대학 출신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팀으로, 팀명 'ViVa'에 담긴 '活力'과 '생동감'이라는 의미처럼 젊은 감각의 클래식 무대를 지향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조영훈이 광주 명코칭과 함께 선보였던 '김정치유 콘서트'에서 출발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로 삶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감정을 들여다보고 위로를 건네는 치유형 콘서트로 확장된 셈이다.

공연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1부는 솔로와 듀엣 중심의 소규모 편성으로 꾸며진다. 에이미 비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Op.23'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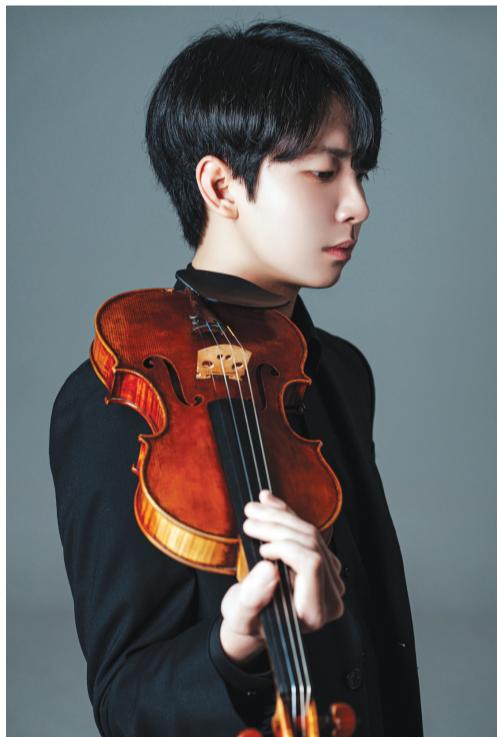
시작으로 슈만과 리스트의 '현정', '현 악 사중주를 위한 마틸다 월츠' 등 고전과 낭만, 춤곡 레퍼토리가 어우러진다. 친숙하면서도 섬세한 선율로 관객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루민진다.

2부에서는 콰르텟과 퀸텟으로 편성을 넓혀 보다 깊이 있는 실내악 세계를 펼친다. 슈만 피아노 콰르텟과 슈베르트 '송어' 5중주 등 고전·낭만 실내악의 대표작들이 이어지고, 비발디 '사계' 중 일부 악장도 포함돼 양상을만의 해석을 들려준다.

공연 중간에는 명코칭 백명 대표가 '콘서트 가이드'로 무대에 올라 감정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조영훈을 비롯해 남윤일, 기예람, 임주언, 조의현, 흥현수, 최성빈, 김명훈, 박소정이 참여한다. 각자의 개성과 양상을의 호흡이 어우러지며 팀의 색채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백명 대표는 "지난해 감정치유 콘서트 이후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공연 역시 젊은 연주자들의 신선한 호흡이 관객에게



조영훈 바이올리니스트. <비바 양상을 제공>

맑은 생명력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달콤한 국악 향연

'크라운해태 한음회' 공연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국악을 직접 배우고 익혀온 직장인 연주자들이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공연이 열린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임직원 국악공연 '제7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크라운해태가 전국 순회로 진행하는 2026년 한음회 일정의 첫 무대로, 광주를 시작으로 경주와 전주, 강릉 등을 찾아 전통음악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음회는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직접 국악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다. 2024년 처음 시작된 이후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무대에 올라 1만여 명의 관객과 전통



지난 '크라운해태 한음회'에서 임직원 '정가네' 팀이 우조우편 '봉황대상'을 공연하는 모습. <크라운해태제과 제공>

음악으로 만났다.

올해부터는 공연 규모와 범위를 크게 넓힌다. 기존 광역시 중심의 공연에서 중소도시까지 무대를 확대해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관객을 직접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광주 공연에는 최고 국악 명인·명창들과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함께 출연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국악 영재들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잇는 전통음악 무

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 임직원이 직접 무대에 서고, 지역 인재와 함께 공연을 꾸미는 점에서 색다른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공연"이라며 "광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NBCC 소설 부문 최종 후보

한강<사진>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개인의 기족사를 다룬 소설이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기억과 사랑, 상흔 등을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제와 선연한 이미지로 구현했다. 지난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봄까지 계간 '문학동네'에 전반부를 연재하며 호응을 받았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 2023년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했다. 메디치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꾹히는 당시 우리나라 작가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건 처음으로, 문학계 화제를 모았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는 20일(현지시간) 2025 NBCC 어워즈 소설 부문 최종 후보로 '작별하지 않는다'의 영어 번역본을 포함한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후보에 오른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제목 'We Do Not



Part')은 이예원과 페이지 모리스가 번역했다.

NBCC는 미국 언론·출판계에 종사하는 도서 평론가들이 1974년 미국 뉴욕에서 창설한 비영리 단체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시·소설·논픽션·전기 등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다. 상금이 없지만 비평가 집단이 엄선한 최고의 책이라는 순수한 문학적 명예와 그에 따른 작가의 위상이 부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오는 3월 26일 발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전통 민화와 생성형 AI의 만남

국가유산진흥원, 이미지 9000여 건 자료로 구축

국가유산진흥원은 '한국 전통 민화 제작 데이터 사업'을 통해 민화 이미지 9천여 건을 자료로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은 한국 전통 민화의 독특한 화풍이나 도상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진흥원은 기획민화박물관, 국립제주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화목(畫目)별 민화 이미지 3천 779장, 상세 묘사 이미지 5천 340장을 자료로 구축했다.

화목은 화조도, 산수화, 호작도, 책가도 등 주제나 소재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또 이미지와 작품 정보를 결합해 AI가 이를 이해하고 언어로 생성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7만 7천 388건도 자료로 확보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작가 연대와 도상 체계를 철저히 검증해 AI 플랫폼에서 한국 민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난 20일 성과 보고회를 열어 그간



'더피' 캐릭터의 학습 전(왼쪽)과 학습 후 모습.

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AI 모델이 민화를 생성하는 시연도 선보였다.

보고회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캐릭터 '더피'를 민화풍으로 만든 사례, AI 모델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도 공개됐다.

구축한 민화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 중 'AI허브'(aihub.or.kr)에서 개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